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민영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in 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에 소재한 3개 대학의 동의를 얻은 해당 간호학과 1,2학년 간호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일~7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독립은 5점 만점에 평균 2.71 ± 0.49 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5만점에 평균 3.61 ± 0.50 점, 대인관계 유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08 ± 0.35 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r=.469, p<.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r=.165, p<.041$)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의 유능성의 향상을 위한 중재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o identify their relationships and prepare an intervention plan.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May 1 to 7, 2021, for 153 first and second-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nursing department who obtained consent from three universities in Busan and Gyeongnam.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the subjects was 2.71 ± 0.49 points out of five points; the average self-esteem was 3.61 ± 0.50 points out of five points, and the average interpersonal competency was 3.08 ± 0.35 points out of five points. Interperson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ag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ubject's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esteem ($r=.469, p<.001$) had a positive correlation, and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r=.165, p<.041$) had a positive relationship. Overall,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re needed.

Keywords :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Interpersonal Competence,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 Min Young Kim(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mail: 0502young@hanmail.net

Received June 19,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Revised July 17,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그동안의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의 깊이와 폭이 확장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 이때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성숙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나 또래 중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이론수업, 국가고시 등으로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데 대인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3],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4]. 대인관계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갈등과 좌절을 유발하기도 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불행은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5].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약 2,6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생 정신건강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약 73.3%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은 실습과 수업 뿐 아니라 간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6] 대인관계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요인 중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7]. 부모와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감, 자율성, 그리고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즉,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에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워, 대인관계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8,9].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와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하는 태도를 말한다[10]. 대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인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진로나 취업 등 다양한 대학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이며[1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문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고, 간호실무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량이다[12].

간호대학생에 있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수업과 간호업무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상실습교육 및 간호실

무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13]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키워나가야 하며, 나아가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발달시켜야 한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교육 과정 이수 뿐 아니라 실질적 간호업무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상호복합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개념, 인지성향, 사회기술 등의 특성이 제시되어 왔으며[15],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분화, 가족 건강성 등의 특성이 제시되어 왔다[16].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개념, 감사 성향, 공감 능력, 인지적 유연성, 자기수용 및 타인수용이 연구되어 왔다[14]. 이처럼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가족적, 심리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을 요인으로 한 연구를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알아보고 간호학적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1,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의 크기(f_z) .15, 예측변수 9개로 산출해 본 연구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 크기는 128명이 추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7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되었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153명이었다.

자료수집은 부산, 경남에 소재한 3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일에서 2021년 5월 7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의 비자발적 참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구자 외 제 3자가 참여하여 연구의 방법 및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 처리되어 대상자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작성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심리적 독립 측정도구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척도를 정은희(1992)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의 4가지 하위척도로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offman은 아버지(69개 문항)와 어머니(69개 문항)를 구분했지만 본 연구는 독립, 미독립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았고 갈등적 독립척도에 해당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8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3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1965)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기백(201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문항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부하량이 낮은 8번 문항을 제외하고 9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90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46이었다.

2.3.3 대인관계 능력 측정도구

Schlei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변화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이형득과 문선모(1982)가 번안한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satisfaction, communication, trust, intimacy, sensitivity, openness, understanding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8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5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rogram 23을 이용해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F)값을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4)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27명(83.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남학생은 26명(17.0%)이었으며, 연령은 20~22세가 91명(59.5%)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47명(96.1%)이 월등히 많았으며, 거주 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116명(75.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형제유무는 1명이 87명(56.9%)로 가장 많았

고, '없다'가 17명(11.1%)으로 가장 적었다.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님 140명(91.5%)이 대부분이었으며, 간호대학생으로서 만족은 '그렇다'가 140명(91.5%), '아니다'가 13명(8.5%)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cent (%)
Gender	Male	26	17.0
	Female	127	83.0
Age	20-22	91	59.5
	23-25	28	18.3
	26-28	20	13.1
	29-31	7	4.6
	32≤	7	4.6
Married	Yes	6	3.9
	No	147	96.1
Housing type	Dormitory	21	13.7
	Living with family	116	75.8
	Etc	16	10.5
Have siblings	No	17	11.1
	1	87	56.9
	2	25	16.3
	3≤	24	15.7
Relationship with guardian	Grandparents	5	3.3
	Parents	140	91.5
	Etc	8	5.2
Satisfaction as a nursing student	Yes	140	91.5
	No	13	8.5

3.2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독립은 5점 만점에 평균 2.71 ± 0.49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5만점에 평균 3.61 ± 0.50 점, 대인관계 유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08 ± 0.3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153)

Variables	M±SD	Min	Max
Psychological independence	2.71±0.49	1.48	3.79
Self-esteem	3.61±0.50	2.11	4.44
Interpersonal competence	3.08±0.35	2.10	5.00

3.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연령(F=3.688, p=.00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연령에서 32세 이상이 20~22세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r=.469, p<.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r=.165, p<.041)은 양의 상관관계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153)

Variabl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r(p)	Self-esteem r(p)	Interpersonal competence r(p)
Psychological independence	1		
Self-esteem	.469** (.001)	1	
Interpersonal competence	.040 (.620)	.165* (.041)	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기초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독립은 5점 척도에서 2.71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2.80점[1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18] 특히 간호대학생에

Table 3.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Interpersonal compete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67±0.38	-.486 (.628)	3.09±0.29	.159 (.874)	3.54±0.52	-.877 (.433)
	Female	2.71±0.51		3.07±0.37		3.64±0.50	
Age	20-22	2.72±0.49	.698 (.595)	3.09±0.34	.425 (.790)	3.72±0.52	3.688 e)a (.007)*
	23-25	2.59±0.52		3.04±0.31		3.46±0.44	
	26-28	2.79±0.41		3.06±0.29		3.56±0.48	
	29-31	2.83±0.67		3.10±0.45		3.64±0.16	
	32≤	2.63±0.31		2.94±0.45		3.10±0.48	
Married	Yes	2.66±0.61	-.271 (.787)	2.78±0.23	-2.135 (.054)	3.58±0.16	-.214 (.052)
	No	2.71±0.49		3.09±0.35		3.62±0.51	
Housing type	Dormitory	2.49±0.56	2.468 (.088)	3.01±0.48	.485 (.617)	3.67±0.54	.311 (.829)
	Living with family	2.75±0.47		3.08±0.34		3.63±0.50	
	Etc	2.70±0.48		3.12±0.35		1.97±0.49	
Have siblings	No	2.58±0.46	.421 (.738)	2.98±0.31	.669 (.572)	3.58±0.57	-.479 (.633)
	1	2.73±0.47		3.09±0.36		3.64±0.48	
	2	2.71±0.45		3.04±0.33		3.68±0.51	
	3≤	2.71±0.62		3.12±0.37		3.52±0.52	
Relationship with guardian	Grandparents	2.59±0.50	1.878 (.156)	3.22±0.33	2.642 (.074)	3.92±0.46	1.329 (.186)
	Parents	2.73±0.49		3.08±0.35		3.61±0.51	
	Etc	2.40±0.39		2.82±0.21			
Satisfaction as a nursing student	Yes	2.72±0.49	.552 (.582)	3.08±0.36	.349 (.728)	3.64±0.50	4.453 (.066)
	No	2.63±0.44		3.04±0.20		3.34±0.41	

*p<.0

게는 간호현장의 업무에 수행에 있어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므로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6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09점[19],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2.96점[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2학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에 대한 가치관, 적성, 긍정적인 기대감과 관련이 있으며[2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생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나므로[2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추후 전문간호의 진로를 위한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5점 척도에서 3.0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3.68점[22], 대학생의 3.42점[2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학업 내용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요구받고 있으나 수업, 실습, 국가고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를 위한 시간의 결핍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 추론된

다.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뿐 아니라 나아가 전문간호인에게 조직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므로[24] 대인관계 유능성을 위한 중재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과도한 부담감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습 수단을 활용하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Kwak, Yi[2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Jackson[26]은 연령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Schlosnagle[27]은 성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심리

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Kim(2009)[2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으로 인해 자율성이 증대되고, 개인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을 강조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의지를 촉진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심리적 독립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리더십 프로그램,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서는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Kim(2019)[29]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의 안정감을 유지시키고 미래에 대한 직업적 확신과 자기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서 간호대학생의 추후 간호 전문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30].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31],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32]. 따라서 임상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와 의료진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33].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은 정의 상관관계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고취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로서 대인관계 유능성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지역의 연구결과라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범지역적 표본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K. An, Y. J. Chung,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8, No.3, pp.719-741. 2016.
- [2] W. J. Cho, J. H. Park, "Individu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12, No.3, pp.89-108, 2005.
- [3] H. K. Yoo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2, pp.244-256, 2015.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2.244>
- [4] J. E. Lee, "Influences of th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on-face-to-face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pp.2829-2840, 2021.
DOI: <https://dx.doi.org/10.37727/jkdas.2021.23.6.2829>
- [5] M. J. Kim, "A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Cultural Competence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1, pp.159-174,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1.12>
- [6] M. O. Yu,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406-413.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7.406>
- [7] J. L. Cullen, "Ethics and Process in the Narrative Study of Lives", *Teaching business ethics*, Vol.1, No.3, pp.1382-6891, 1998.
- [8] J. I. Lee, S. Y. Park,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Adolescents : Influences of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 and Adolescents'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3, pp.175-189, 2008.
- [9] N. Han, S. Y. Le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Family Triangulation and Negative Approval-based

- Self-appraisal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8, No.4, pp.181-203, 2015.
- [10]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8, 60-68, 2009.
- [11] G. E. Song, E. S. Kim, J. H. Shin,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Employment Stress",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7(2), 23-32, 2021. DOI: <http://dx.doi.org/10.47116/apicri.2021.02.03>
- [12] H. J. Yang,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1 pp.161-170,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1.161>
- [13] E. J. Choi,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Visualization Tendency and Problem-solving Process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5, pp.2351-2363, 2021. DOI: <http://dx.doi.org/10.37727/jkdas.2021.23.5.2351>
- [14] M. S. Lee, K. M.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12, No.1, pp.63-75, 2012.
- [15] M. J. Bae, H. I. Jo,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6, pp.2417-2435, 2014.
- [16] M. D. Anderson, R. M. Sabatelli,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18, No.1, pp.32-50, 1990.
- [17] E. Y. Yoon, J.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Status: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2, No.3, pp.191-213, 2016. DOI: <http://dx.doi.org/10.15820/khjss.2016.42.3.008>
- [18] Lee, J. I., Park, S. Y.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Adolescents : Influences of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 and Adolescents'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3, pp.175-189, 2008.
- [19] K. H. Kim, E.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stee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3, pp.1519-1533, 2012.
- [20] I. J. Jeong, S. M. Lim,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4, pp.64-73, 2021. DOI : <https://dx.doi.org/10.22156/CS4SMB.2021.11.04.064>
- [21] Y. H. Lee, E. M.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college life, communication styl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self-esteem", *Student Life Guidance Research Institute*, Vol.26, pp.5-36, 2004.
- [22] J. E. Yi, H. W. Kwak, "Relation of DISC Behavioral Styles,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 Vol.12, No.1, pp.31-40, 2017. DOI: <http://dx.doi.org/10.15715/kihcom.2017.12.1.31>
- [23] K. W. Seo, T. H. Kim,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and Weight Concer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8, No.6, pp.41-49, 2020. DOI: <http://dx.doi.org/10.22678/JIC.2020.18.6.041>
- [24] M. S. Seo, J. S. Park, O. K. Kim, M. .H. Heo, J. O. Park, M. M. Park,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nursing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22, No.2, pp.28-43, 2017.
- [25] 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38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147-155, 2016.
- [26] P. B. Jackson, M. Finney, Negative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Young Adults. *Soc Psychol Q* Vol.65, No.2, pp.186-201, 2002.
- [27] Leo Schlosnagle. Age differences in younger and older adults' experience of interpersonal problems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 [28] K. B. Kim, *The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three factors on adaptability to school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 based on Stud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29] J. E. Choi, G. J. Kim, "The interpersonal skill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overuse of smart phone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Vol.9, No.7, pp.397-408,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7.036>
- [30] D. Yu, I. S. Lee, J. K. Yang, "A Study on Regional Smart-Phone Addiction with Demographic and Sociodemographic Fa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0, No.3, pp.51-75, 2014.
- [31] Kendall, S., Bloomfield, L."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1, pp.174-181, 2005.
- [32] E. K. Lee, J. A. Park,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2013.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33] S. J. Lim, E. Y. Park,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151-16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51>
-

김민영(Min-young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0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9년 9월 ~ 2021년 2월 : 영남외국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특수아동간호